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국제적 전문가 양성 "계명대학교"

신 일 희 | 계명대 총장

학문의 탁월성을 추구하고
탁월한 학문의 윤리성을 앙양함으로써
세계 민주 시민으로서
지성과 덕성을 갖춘
"개방적 세계인"
"창조적 전문인"
"도덕적 실천인" 을 양성하는 대학.

◇ 계명의 어제와 오늘

계명대학교는 1954년 3월 미국 북장로회 주한 선교부 안두화(Rev. Edward Adams)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영남 지방의 중심지인 대구에서 대학 교육을 실시하고자 설립한 "계명기독학관"으로부터 시작된다.

1955년 2월 당시 문교부로부터 계명기독대학 설립인가를 받은 계명대학교는 초대 학장에 감부열(Archibald Campbell) 박사가 취임을 하였고, 1965년 "계명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으며, 1978년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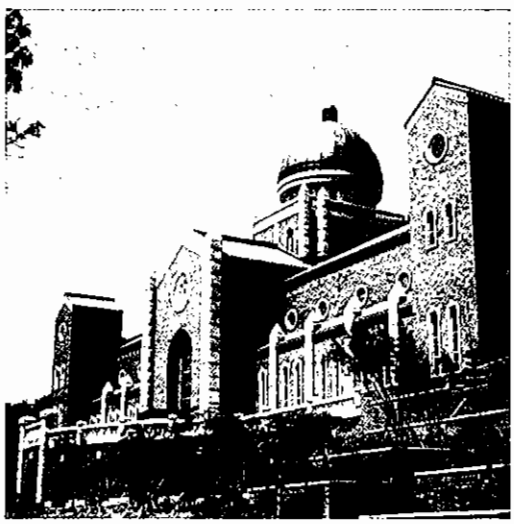
합 대학으로 승격하였다. 1980년 10월 당시 81년의 역사를 가진 한강 이남의 최고 병원인 대구동산기독병원과 합병하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동산병원"을 개원하였으며, 현재 55만여 평 규모의 성서 캠퍼스를 비롯하여 대명 캠퍼스, 동산 캠퍼스 등 모두 3개 캠퍼스에 20개 학부, 2개의 단과 대학, 3개 학과, 79개의 전공과 13개 대학원, 12개 대학원, 12개 부설 연구소, 26개 부속 기관에 모두 2만 7천여 명의 학생과 2천 400여 명의 교직원들이 봉사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수의 명문 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계명대는 국제화, 정보화, 특성화를 21세기 발전 방향으로 정하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세계를 여는 키워드 계명대학교!!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교육 시장 개방을 맞이해 계명대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다.

계명대학교는 1978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세계 19개국에 86개 대학 및 기관과의 자매 및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장 · 단기 교수, 학생 교류 및 각종 학 · 예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1997년 1월에는 미국의 150개 이상 대학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Harvard, MIT, Yale, Stanford, UC-Berkeley 등의 유수한 미국 대학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을 위한 "해외 단기 유학 컨소시엄"인 CCIS(College Consortium for International Studies)의 "한국 유일의 주관 대학"으로 선정되어 이들 회원 대학 학생이 한국 유학시 계명대학교에서 한국의 문화, 예절, 언어 등을 교육받게 되었다. 1998년 5월에는 국제 교환 학생프로그램인 ISEP(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Program)에 가입하여 미국의 112개 ISEP 회원 대학들과 보다 폭넓은 학생 상호 교환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또한 미국 자매 대학과의 학 · 석사 학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사 과정을 마친 후 바로 미국 협력 대학의 학 · 석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므로 보다 쉽게 미국 유학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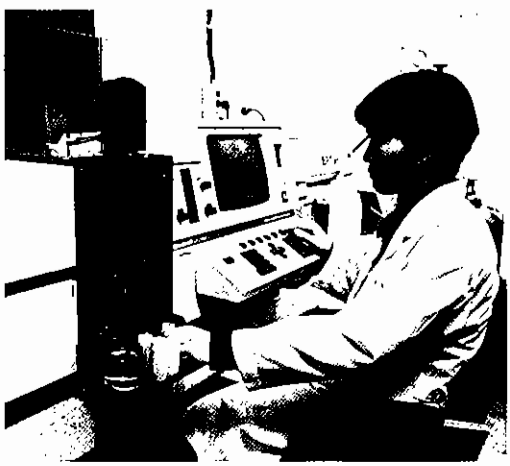
한편, 세계 수준의 음악 교육을 실시하는 계명-쇼팽 음악원을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외국 음악 교육 기관(폴란드 국립 쇼팽 음악원)과 계명대학교 음악 학부가 공동으로 음악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1999년

3월부터 바이올린, 성악, 피아노 등의 전공 부분에 총 96명을 선발하여 쇼팽 음악원 전공 교수들이 계명대학교에서 직접 강의와 레슨을 담당하고, 계명대 학생들은 폴란드 국립 쇼팽 음악원에 입학하여 2년간의 유학으로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다.

계명대학교는 1998년 미국 LA에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연구하고, 현지 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에게 올바른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교육하기 위해 Keimyung Educational Foundation(KEF)을 현지 법인으로 설치하여 호프인터내셔널 대학교(HIU), SAT Ⅱ 한국어진흥재단과 함께 1999년 10월부터 1년 과정의 "미국 공립 학교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정원 20명)을 신설하여 언어학, 한국어 구조, 말하기 · 듣기 · 읽기 · 쓰기,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중 · 장기적으로 California State University 계열 대학에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 특성화 교육을 통한 21세기 뉴리더 양성

1997년도부터 실시한 학부제의 내실을 기하고 특성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학부 중심 행정체제로 개편하여 학부별 경쟁 체제를 도입해 패션디자인, 자동차공학, 환경공학, 예술계 학부를 중점 육성하고 있다.



특히 섬유 패션 산업의 생산에서 마케팅까지 전 분야에 걸쳐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섬유 패션 산업 특화 국제 전문 인력 양성 국책 사업단"을 확대 개편해 5년 과정의 "FISEP School(섬유 패션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대학원)"을 오는 2001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학부 3년, 대학원 1년으로 학부 과정에서는 이론과 기초를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에서는 현장 위주의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국제 감각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주당 10시간 이상의 외국어 교육과 미국, 호주 등 해외 어학 연수, 밀라노 해외 비즈니스 현장 체험, 국제 매너 교육, 대기업 경영 마인드 연수 등 강도 높은 교육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업 성적이 전국 상위 5% 이내의 학생 40명을 선발하여 5년간 전면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본인이 원할 경우 해외 대학과 연계해 해외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후 벤처 기업을 창업하면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시켜 지원할 방침이다.

1996년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지역 협력 연구 센터(RRC)로 지정 받은 "저공해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 센터"는 친환경적 자동차 부품 기술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대구 · 경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독일의 국제적 품질 인증 기관인 DEKRA의 협력으로 자동차 부품 국제 품질 인증 기관으로 선정되어 센터 내에서 품질 인증 평가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 자동차 부품 업계는 해외 품질 인증 의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국제 규격을 갖춘 제품 생산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도 용이해 질 것이다. 또한 이 센터에는 수출 시장 및 신기술 정보를 수집, 기업에 제공하는 기술 정보 지원단이 함께 입주해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를 갖추었다.

◇ 21세기 인재 양성의 요람

계명대학교는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함과 아울러 세계 문화에 융화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시설과 학습 공간을 갖추고 있다.

계명대학교의 자랑이자 정보의 산실인 동산 도서관은 지난 '96년 동아일보 주최 대학 정보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정보화의 명문으로 각광받은 바 있다.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에, 수용 장서만도 140여만 권이 넘으며, 전통 문화 연구 관련 고문헌 자료 6만여 권까지 질과 양 모두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며, 완전 전산화되어 자료 검색이 편리한 전국 최고의 대학 도서관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 고범전자정보실은 다양한 정보망 접근이 가능한 멀티 PC로 워드프로세서에서 인터넷까지 지원해 주는 21세기형 자료실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계명대학교의 또 다른 노력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현재 전국 5~6위 권의 훌륭한 교육 시설에 걸맞는 교육 공간과 쾌적한 후생 복지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증축 중인 기숙사는 2001년말 완공이 되면 1,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어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의 숙식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한편,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우수 신입생들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과 도서비 및 기숙사비 전액을 지급하는 입학비사최우수를 비롯, 50여 종의 교내 장학 제도와 60여 종의 교외 장학 제도를 운영, 연간 80여 억 원의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도 장학 제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성적 우수 학생은 물론 가계가 곤란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건전 동아리의 중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내재된 자질을 발굴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성취감을 통하여 학문과 교양이 어우러진 도덕적 국제 전문인을 육성할 것이다.

한편, KBS의 「야망의 전설」, MBC의 「억새바람」, SBS의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 영화 「동감」 등 각종 영화 및 CF 촬영의 최적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대명 캠퍼스! 고풍스러운 벽돌 건물, 울창한 숲, 깨끗하고 쾌적한 캠퍼스는 심신을 닦는 배움터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이처럼 계명대학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대명 캠퍼스, 그리고 깨끗하게 단장된 성서 캠퍼스에서 비사인들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학생 활동을 통해 지, 덕, 체를 두루 갖춘 인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 미래로의 도전

21세기 세계 속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 2의 창학을 내걸고 도약하는 계명대학교는 성서 캠퍼스에 국제 규모의 오페라하우스와 미술관을 건립하고, 대명 캠퍼스를 지역 예술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2월 28일에는 정보통신부,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대구 소프트웨어 지원 센터와 정보 통신 교육원 대구 분원을 계명대 대명 캠퍼스에 개원하였으며, 정보 통신 분야 창업 보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3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창업 지원실, 공용 장비 지원 센터, 모션 캡쳐실, 영상 · 음향 편집실, 전시장, 상담실, 시사회실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를 기점으로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사업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입주시켰고,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 센터에서 배출되는 유망 S/W 개발 업체와 S/W 관련 연구소, 금융 기관, 벤처 지원 기관을 유치해서 "국제 비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S/W 산업 발전과 아울러 대구의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의과대학과 간호학부, 동산병원 등을 성서에 새로 건립,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대구 · 경북 서부 지역에 최고의 의료 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리 탐구, 정의 실현,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인류 사회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길 젊고 패기에 찬 인재를 양성하며 최고의 젊은 날을 약속하는 계명대학교!

21세기형 뉴리더를 양성하는 세계 속의 젊은 대학!

계명대학교는 바로 깨어 꿈꾸는 자의 요람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참 배움터이다.